

달새의

가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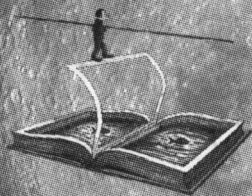
[한국] 윤한식



출판사

책사람의 가락지

[한국] 윤한식



(文月) 724 · 198 · 01310 · 61 · 427 (民文)

10.00 원

(如印其重量有問題, 請已本社取回原圖)



출판사
홍릉갈
조선민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候鸟的心声/[韩]尹汉植著.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3

ISBN 7-5389-1310-6

I. 候... II. 尹... III. 童话—作品集—韩国—现代—朝鲜语
IV. I312.688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018392 号

书 名/ 候鸟的心声

著 者/ [韩]尹汉植

责任编辑/ 崔冬梅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尹今玉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850×1168 1/32

印 张/ 6.25

字 数/ 110 千字

版 次/ 2006 年 4 月第 1 版

印 次/ 2006 年 4 月第 1 次印刷

印 数/ 1-2 000 册

书 号/ ISBN 7-5389-1310-6/I·437(民文)

定 价/ 10.0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철새의 가락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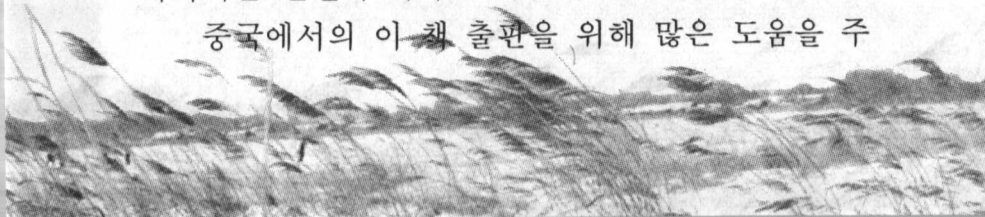
펴내며

지난 1999년에 중국에 살고있는 사랑하는 조선족동포 어린이들에게 《공주의 빨간코》를 선물한후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릴적에 저는 아버지한테서 늘 구수한 옛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50여년을 삼애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아름답고 재미있는 희망의 이야기들을 채워주고저 많은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런만큼 저의 동화는 착한 사람은 성공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이 다분합니다. 그리하여 이 책이 중국에 살고있는 조선족동포 후대들의 정감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착하게 튼튼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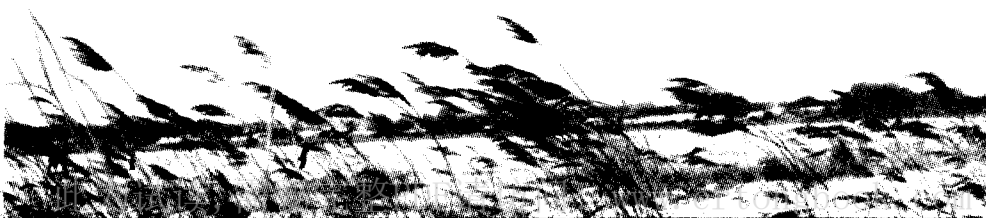
중국에서의 이 책 출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





신 중국동포사랑방문단의 김철수박사님과 그리고 이
책을 정성껏 출판해주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편집
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독자 여러분들
의 앞날이 항시 밝고 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한국 삼애원에서
저자 윤한식





차례

《철새의 기록지》를 펴내며 / 1

복숭아와 도깨비 / 1

하얀미꽃과 산사나이 / 8

다림쥐의 노래 / 13

계곡말의 순례 / 19

핀돌이의 마적호박 / 27

이어곰주자매 / 35

사자와 코끼리 / 40

꿈나라의 호자왕자 / 46

호녀 기성 / 54

해님의 선물 / 62

아버지의 옛이야기 / 66

꿈나라의 황금나무 / 79

천년묵은 이마기와 과일나무 / 88

- 갈벌의 세계 / 93
 호랑이 갑은 소년 / 98
 귀여운 병아리 / 103
 호랑이 가시나무 / 108
 아기천사와 모퉁이 / 112
 마녀와 공주 / 120
 천사의 가락지 / 127
 삼형제의 운명 / 134
 숲속 나라의 평화 / 141
 다섯가지 약 / 146
 옹호와 소년군 / 154
 큰 바위할아버지 / 161
 엽걸 백냥 / 167
 나무꾼의 비밀 / 174
 호돌이와 곰돌이 / 179
 뽕뽕이 / 184





복숭아와 도깨비

옛날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산머리가 하늘에 맞닿을 정도로 으늑한 산촌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하늘재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마을은 병풍같은 산에 둘러싸여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았습니다.

봄이 오면 산들은 록색옷으로 단장하였다가 여름에는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고 가을에는 청, 황, 홍색의 울긋불긋 고운 옷차림으로 단장하여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하얀 눈옷을 입어서 이것 또한 순결의 아름다움으로 마을사람의 마음을 한결 더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재마을은 물이 풍부해 가뭄의 해를 받지 않았기에 흉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들에는 황금빛 벼들이 물결치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





습니다. 밭에는 키 큰 수수며 오동통한 콩알이며 수
염 달린 옥수수가 익어 마을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이웃끼리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 하면 산에는 노래하는 산새들이며 다람쥐, 토끼,
노루 같은 짐승이 있어 마을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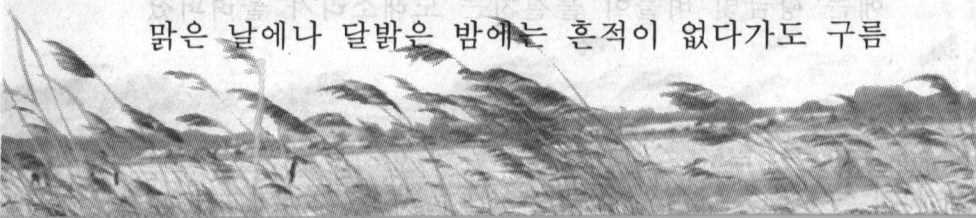
그런데 이처럼 평화스러운 마을에 어느날부터
도깨비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장에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오다가 빼앗기기가 일
썩었고 이 마을을 찾아오던 나그네들이 도깨비에게
혼이 난것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는 일기
가 좋은 날에는 보이지 않다가 먹장같은 구름이 몰
려든 오밤중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늘재마을 사람들은 하느님께 도깨비의 해를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하늘재마을에는 복숭이라 부르는 슬기롭고
용감한 아이가 있었는데 정의심도 강했습니다.

복숭이는 《내가 꼭 도깨비를 퇴치할것이에요!》 하
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칠월이 되자 하늘재마을은 온통 푸른 주머니속
에 들어있는것 같았습니다. 비가 자주 내렸기에 칠
혹같은 어두운 밤도 많았습니다. 마을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멀리 산골짜기에 자리잡고있는 도깨비굴은
맑은 날에나 달 밝은 밤에는 흔적이 없다가도 구름





긴 어두운 밤에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려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복숭이는 오늘밤이 도깨비하고 대결하기에 알맞은 밤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도깨비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들고있으면 미련한 놈들이 나한테로 다가올거야.)

복숭이는 돼지고기 한근을 준비해가지고 도깨비를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복숭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용감한 복숭이는 도깨비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숭이는 동구밖에서 하얀 수염에 하얀 옷차림을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복숭이는 머리를 가우뚱하면서 하얀 수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꺾꺾 웃으며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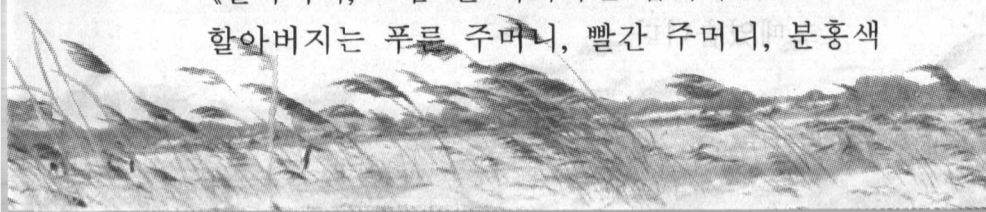
《복숭아, 너는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에게 뒤지지 않는 담력을 가졌구나.》

복숭이가 뭔가를 물으려 하자 할아버지는 말이 이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지는 마라. 오늘밤 너를 도와 도깨비를 퇴치할거란다. 걱정을랑 말고 착한 하늘재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거라.》

《할아버지, 그럼 전 어찌하면 됩니까?》

할아버지는 푸른 주머니, 빨간 주머니, 분홍색





주머니를 복숭이에게 건네주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도깨비를 처치할 무기란다. 너와 함께 도깨비를 대치할테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조건 내 말에 따라야 한다.》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침 어테션가 《복숭이야, 어서 빨리 도깨비굴로 가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숭이는 도깨비굴을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잠시 후 도깨비굴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마침 수십마리는 실히 될상싶은 도깨비들이 하늘재마일로 내려가려고 분주히 서두르고있었습니다. 한 도깨비가 쿵쿵 하고 냄새를 맡더니 말했습니다.

《애들아, 어테션가 돼지고기 냄새가 나는것 같지 않니? 참 구수한데... 음, 분명 누군가 이 부근에 있어.》

그러자 다른 도깨비들은 돼지고기를 찾느라 씹씹 냄새를 맡으며 왁작 떠들어댔습니다.

이때 《동구밖으로 냉큼 되돌아가 있거라.》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얀 수염할아버지임을 안 복숭이는 순식간에 마을 동구밖으로 달려왔습니다. 멀리서는 도깨비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푸른 주머니를 도깨비쪽으로 던져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숭이는 할아버지의 명령대로 푸른 주머니를 와락 던졌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의 주위에 가시나무숲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떼는 가시나무 울타리우로 매달리더니 미친듯이 몰려왔습니다. 도깨비들이 가시나무숲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또 들렸습니다.

《빨간 주머니를 가시나무숲으로 던져라.》

복숭이는 빨간 주머니를 힘껏 가시나무숲으로 던졌습니다. 가시나무숲에 대뜸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가시나무숲과 함께 도깨비들이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때 하늘이 억수로 소낙비를 쏟아붓더니 불이 꺼지고 땅은 차차 식어갔습니다.

이젠 도깨비들을 다 없애버려 한시름 놓으려는데 또 어데선가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복숭이야, 분홍색주머니를 재더미에다 던지거라.》

복숭이가 분홍색주머니를 던지자마자 검게 타버린 대지우로 푸른 새싹이 뽕뽕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모습은 볼수 없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 새싹이 복숭아나무이다. 너의 행실이 기특하여 네 이름을 닮은 맛좋은 과일을 하늘재마을에 선물로 주겠노라.》

새싹은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에 연분홍색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잇달아 꽃이 지면서 호함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줍은듯 발그레한 열매는 보기에 입맛을 돋구는 맛좋은 과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칠월이 되면 복숭아가 익어 마을사람들이 즐겨 먹을것이다. 그러나 복숭아나무는 그 나무나 과일이 세상의 다른 나무나 과일과 전혀 다른데가 없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복숭아나무를 도깨비를 막아주는 방패로 생각할까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잠 폭 자고 아침에 깨여보니 지난 밤의 일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복숭이는 복숭아나무는 하늘이 주신 과일나무로서 세상의 다른 나무와 똑같은것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을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후부터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도깨비가 하늘재마을에 다시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사람들이 복숭아밭이 도깨비를 막아주어 마을에 도깨비가 오지 못하는것으로 오해하고 복숭아나무가 귀신을 막아주는 나무라고 믿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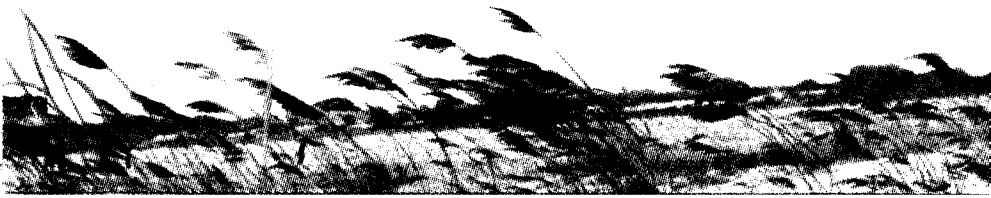




되어 오늘날까지 전설로 전해내려오게 된것입니다.



철새의
가락지





한글서체 100% 한글서체 100% 한글서체 100% 한글서체 100%

할미꽃과 산사나이

깊고깊은 산골에 산수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
다.

인가가 적은 마을이라 인심 좋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살고있었습니
다.

산수동에는 이름과 같이 높고 푸른 산, 깨끗한
물, 풍부하고 맛있는 산열매가 있어 마을사람들은 마
냥 행복하게 지내고있었습니다.

마을주변에 줄 지어선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
무, 밤나무, 살구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맺어 사람들
은 철따라 맛있는 과일을 맛볼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화전을 일구어 농사도 짓고 돼지,
소, 양과 같은 가축이며 닭, 오리 같은 가금을 기르
면서 풍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산골이라 맹수인 호랑이, 표범, 곰, 살쾡
이, 늑대 같은 짐승도 많았으나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마을에는 황소같이 몸집이 큰 산사나이가 나타나 마을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짐짐승, 옷, 과일, 곡식 등을 닥치는대로 빼앗아갔습니다.

이 마을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을 합쳐 산사나이를 쫓아낼수 있었으나 신변의 안전을 고려해 산사나이가 하는짓을 내버려둘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무서워 갈팡질팡 어쩔줄을 모르는 아이들을 숨겨줘야 했습니다.

마을에는 손자와 함께 사는 년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아들부부마저 죽자 할머니는 생명처럼 소중한 어린 손자를 애지중지 돌보며 외롭게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산사나이가 나타났다는 말에 놀란 손자는 숨을 곳을 찾으려 나갔다가 그만 죽고말았습니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와 온 마을은 온통 슬픔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죽음이 서러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할머니 손자의 죽음을 못된 산사나이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할머니는 하늘에 《내 손자를 해친 산사나이를 죽여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말을 남기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마을 뒤산 양지바른 곳에 할머니를 묻고 묘지를 곱게 단장해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묘지에 늘씬한 꽃대가 자라나더니 자주빛 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원을 들은 하늘이 산사나이를 쫓아내는 무기로 하사한 꽃이었습니다.

이곳을 경과하는 마을사람들도 자주색 꽃을 보면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녀이 꽃이 되었나봐!》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의 한 어른이 할미꽃을 본 산사나이가 놀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가 산사나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를 대치하는 무기가 할머니의 무덤에서 피어난 줄도 모르고 또 찾아왔습니다.

마을에는 용성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겸한 소년이었습니다. 신동 용성은 뒤산에 올라 할머니의 묘지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할미꽃 한송이 꺾어 들고 산사나이를 찾아나섰습니다.

날췌고 용감한 용성은 만일 할미꽃이 산사나이 앞에 위력을 과시하지 못한다면 버리고 달아날 심산

